

아니 그게 아니라

▶ 이윤서, 임서윤, 박채은(한민고등학교)

우리 동네를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를 잡아라!



리포트

인천을 둘러싼 험악한 별명,
'마계 인천'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

영 상

'마계 인천' 진짜라고 생각해?



각오한마디!

안녕하세요! 저희는 팩트 체커 팀 '아니 그게 아니라' 입니다. 저희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반박할 거리, 이의 제기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아니 그게 아니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가짜 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람들에게 팩트체크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팩트 체크를 귀찮은 것,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며 정보를 접할 때 팩트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의 유포 및 확산은 범죄로,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며 반박할 거리가 생겼을 때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인 '아니 그게 아니라'처럼 정보를 접할 때 습관적으로 팩트 체크를 행하자는 의미를 팀명을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팩트 체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렵고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스스로 직접 가짜 뉴스에 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맞서 도전하고 부딪히는 활동을 하며 이 활동 이후에 앞으로 맞닥뜨릴 뉴스에는 무조건 수용적인 자세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바라볼 각오로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가짜 뉴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사람들이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모두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눈을 키울 수 있도록 활동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팩트체크 리포트

인천을 둘러싼 험악한 별명, '마계 인천'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

팩트체크 계획 수립하기

➡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고담 대구, 마계 인천, 라쿤 광주 등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특정 지역을 둘러싼 별명들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별명들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마계, 고담(만화 '배트맨'의 범죄도시)등의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별명은 특정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의 별명들이 사실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별명인지 아니면 왜 이러한 별명이 만들어져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게 되었는지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팩트체크해 보기 위해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팩트체크 방법에 대한 계획

'마계 인천'이라는 인천의 별명이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며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별명이 생겨난 원인을 살펴보고 뉴스 기사를 통해 그 별명으로 인한 인천의 피해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후 그 별명이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인지 뉴스 기사, 통계자료 등을 통해 팩트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또한, 실제 사람들이 얼마나 인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졌는지 설문지를 통해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팩트체크 이후 별명이 발생하게 된 이유나 의미가 잘못된 지식이나 근거 없는 정보에 기반을 두었을 경우 '마계 인천'이라는 별명을 통해 인천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었을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인식을 변화시켜줄 영상을 제작할 것입니다.

체크해보기

01 찾아보기

물어보기

직접해보기

반론의견

뉴스 기사에 대한 근거 조사

1. '부평 패싸움' 문지마 폭행 이어 집단 난투극까지... "마계 인천?!", 2015.10.14,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0141918026746109_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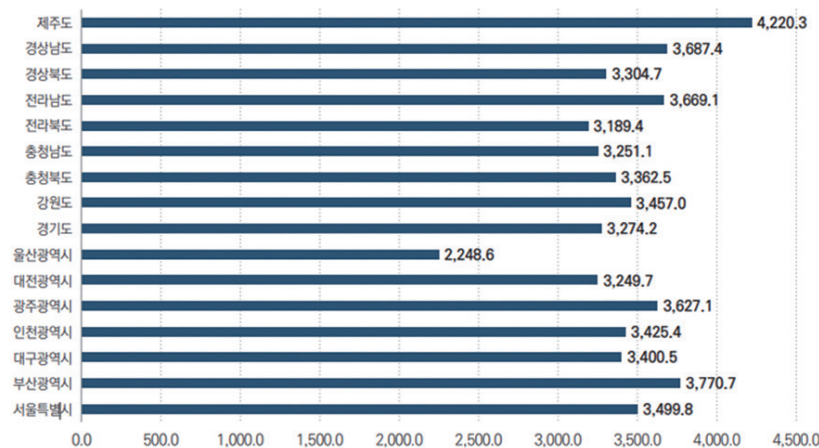
[기사 요약] ▶ 인천 부평에서 20대 남성들이 집단 패싸움을 벌였다. 최근 부평에서 남녀 커플을 문지마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난 바 있어 인천시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부평 저녁엔 못 가겠다.", "마계 인천답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위 기사에서는 부평에서 발생한 패싸움 사건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기사의 제목과 네티즌들의 반응에서 '마계 인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기사는 '마계 인천'이라는 단어가 미디어에서 흔하고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위 단어가 왜 이 기사에 사용되었는지와 적절한 표현이 맞는지에 대해 팩트체크 해 보았습니다.

우선 '마계'의 사전적 의미는 '악마의 세계'라는 뜻으로 다양한 게임, 소셜 등에서 많은 악마가 사는 공간으로 묘사되어왔습니다. 이러한 단어가 왜 인천의 수식어로서 사용되고 있을까요?

마계 인천이라는 표현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사용하던 것이 시초입니다. 당시 지역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별명들(ex. 고담 대구, 갱스 오브 부산, 라쿤 광주)이 생겨나던 시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인천 또한 엽기적이고 끔찍한 대형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여 이러한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계 인천이라는 별명은 당시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한국프로야구 플레이오프 5차전이 열렸을 때 우중충한 날씨가 마치 마계와 같다고 하여 야구팬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별명이 인터넷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며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유튜브, SNS 등에서도 마계 인천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TV나 언론 등에서도 인천의 범죄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 ‘마계 인천’이라는 인천의 별명은 마치 인천의 정식명칭처럼 흔하게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인천이 실제로 이러한 별명처럼 범죄가 넘쳐날까요? 출처로 사용한 뉴스 기사에서는 검찰청의 2019년 범죄분석 통계를 사용하여 2019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인천이 3,441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부산, 서울보다도 범죄율이 낮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직접 검찰청에서 같은 통계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7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출처 : 경인일보 : [오! 인천, 오해와 진실] 인천은 정말 마계 도시일까요?
검찰청, 2020 범죄분석 - 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24p, 25p), (2020)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나 논문 자료

▶ 이정복(대구대학교), 사회적 소통망(SNS)의 지역 차별 표현, 한국어 문학회, 2013

마계 인천, 라쿤 광주, 고담 대구 등은 2000년대 이후 인터넷 공간에서 젊은 세대에 의해 만들어지고 활발히 쓰이는 것이다. 사회적 소통망에서 쓰이고 있는 지역 차별 표현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경상도 및 전라도를 대상으로 하는 말들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등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훨씬 많다. 지역 차별 표현은 해당 지역민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지역 간 대립과 지역감정을 조성하고 조장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쓰는 사람은 말의 본 뜻을 모르고 재미나 습관으로 쓰더라도 듣는 당사자로서는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대립과 갈등 등의 현실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양혜승(경성대학교), 지역혐오와 포털 뉴스 : 네이버뉴스 범죄 보도비율의 지역 간 차이 분석, 한국지역언론학회, 2018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현상은 우리 사회의 역사와 정치 환경 속에서 파생된 복잡하고 중층적인 기현상이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주도하는 요인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도 그중 하나로 뉴스 미디어이다. 범죄뉴스는 지역혐오가 재생산될 수 있는 민감한 창구 중 하나이다. 범죄뉴스는 발생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포털 뉴스의 댓글에는 범죄 발생지역에 대한 혐오 댓글이 줄을 잇곤 한다. “그 지역은 그런 일이 발생하고도 남을 지역”이라는 조롱을 비롯하여 주관적이고 근거 없는 논리가 난무한다. 범죄뉴스에서 기사 제목도 또한 중요하다. 뉴스 제목을 기사의 들러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뉴스 제목은 기사 본문과는 별개로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분석 결과가 존재한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뉴스 제목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뉴스의 경우 이용자가 뉴스 제목을 클릭해야 본문을 볼 수 있는 구조를 지니기 때문이다. 범죄뉴스의 제목에서 범죄 발생지역이 강조된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뉴스 주체로서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발생지역에 대한 언급이 있는 기사와 없는 기사를 비교해 보았을 때, 기사 본문과 별개로 기사의 제목만으로도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가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잘못도 또한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관련 사이트 조사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2021, 2023.06.07, 범죄 발생지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211&conn_path=I2
 검찰청, 2020 범죄분석 - 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24p), (2020)

▶ 첫 번째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전국 지역의 범죄 발생 총 건수는 서울 274,830/ 대구 72,339/인천 85,342/ 광주 44,610/경기도 388,004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 순으로 범죄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 범죄 건수를 분석해봐도 서울 2890.1/ 대구 3032.6/인천 2897.6/광주 3094.5로 대체로 인천이 뚜렷하게 많은 비율이 아닌 다들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검찰청의 2020 범죄분석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체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 인천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지만 제일 높은 순위가 8위일 만큼 항상 낮은 범죄율 순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 세 번째로 분석한 통계청 e-지방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구 천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6건으로 16개 지역 중 7번째로 적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전국 평균인 26.80건보다 작은 범죄 발생 건수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대부분 평균보다 범죄 발생 건수가 적었습니다. 인천 일보에 따르면 치안 고객 만족도가 높을수록 치안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국 18개 지방청 중 2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반면 함께 공개된 2020년 체감 안전도 평가 순위에선 74.9점을 받아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 출처: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https://kosis.kr/visual/eRegionJipyo/themaJipyo/eRegionJipyoThemaJipyoView.do> (통계청 e-지방지표)

(A부터 J까지 차례대로 2010~2019/ 노란색이 인천의 10만 명당 범죄발 수치)

(위 엑셀 파일의 원본 표)

	A	B	C	D	E	F	G	H	I	J
1	4,976.10	4,892.90	4,983.60	5,975.00	5,307.00	5,739.20	5,829.50	5,201.30	4,512.40	4,220.30
2	4,593.40	4,735.10	4,933.80	4,959.00	4,823.00	4,560.30	4,246.80	3,799.70	3,667.90	3,770.70
3	4,581.50	4,331.10	4,322.50	4,538.80	4,203.70	4,453.10	4,177.20	3,765.60	3,510.00	3,687.40
4	4,428.20	4,142.40	4,241.60	4,273.20	4,149.90	4,330.20	4,117.10	3,750.00	3,501.50	3,669.10
5	4,189.90	4,084.20	4,191.00	4,238.50	3,911.80	4,307.50	4,113.30	3,731.90	3,494.80	3,627.10
6	4,110.70	4,046.30	4,131.00	4,119.40	3,900.10	4,174.30	4,107.80	3,575.70	3,474.90	3,499.80
7	4,085.80	4,027.30	3,892.40	4,091.60	3,853.70	4,081.50	3,926.30	3,572.30	3,402.00	3,457.00
8	4,037.70	3,763.00	3,837.90	3,940.80	3,806.90	3,856.30	3,880.20	3,571.40	3,355.30	3,425.40
9	3,959.70	3,703.20	3,768.70	3,923.40	3,771.10	3,776.60	3,771.80	3,443.30	3,308.30	3,400.50
10	3,869.50	3,693.40	3,764.90	3,922.10	3,641.10	3,767.50	3,753.30	3,407.40	3,287.80	3,362.50
11	3,836.50	3,664.60	3,751.70	3,874.20	3,584.00	3,753.70	3,723.30	3,352.20	3,234.00	3,304.70
12	3,834.80	3,458.50	3,745.90	3,787.60	3,578.20	3,691.00	3,562.80	3,324.20	3,228.90	3,274.20
13	3,614.00	3,429.30	3,664.40	3,744.90	3,536.50	3,679.90	3,542.70	3,308.30	3,201.90	3,251.10
14	3,572.70	3,421.00	3,500.40	3,583.60	3,349.80	3,513.20	3,413.70	3,287.40	3,189.30	3,249.70
15	3,521.10	3,380.50	3,245.60	3,348.70	3,294.50	3,436.50	3,346.50	3,086.30	3,067.90	3,189.40
16	3,307.40	3,372.40	3,166.90	3,299.20	3,195.20	2,915.40	2,526.60	2,279.40	2,191.30	2,248.60

표 14 전체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추이(2010년~2019년)

(단위 : 발생비)

지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특별시	3,614.0	3,763.0	3,764.9	3,874.2	3,853.7	3,856.3	3,753.3	3,575.7	3,494.8	3,499.8
부산광역시	3,959.7	4,046.3	4,131.0	4,273.2	4,203.7	4,453.1	4,117.1	3,750.0	3,667.9	3,770.7
대구광역시	4,085.8	4,142.4	4,191.0	4,119.4	4,149.9	4,330.2	3,771.8	3,324.2	3,228.9	3,400.5
인천광역시	3,521.1	3,421.0	3,664.4	3,744.9	3,578.2	3,767.5	3,723.3	3,443.3	3,201.9	3,425.4
광주광역시	4,581.5	4,735.1	4,933.8	4,959.0	4,823.0	4,560.3	4,107.8	3,731.9	3,510.0	3,627.1
대전광역시	3,572.7	3,372.4	3,166.9	3,348.7	3,294.5	3,436.5	3,413.7	3,352.2	3,234.0	3,249.7
울산광역시	4,110.7	3,693.4	3,751.7	4,091.6	3,900.1	2,915.4	2,526.6	2,279.4	2,191.3	2,248.6
경기도	3,307.4	3,429.3	3,500.4	3,583.6	3,584.0	3,776.6	4,113.3	3,572.3	3,287.8	3,274.2
강원도	4,189.9	4,027.3	4,322.5	4,238.5	3,806.9	4,081.5	4,177.2	3,799.7	3,402.0	3,457.0
충청북도	3,836.5	3,380.5	3,245.6	3,299.2	3,195.2	3,679.9	3,880.2	3,571.4	3,355.3	3,362.5
충청남도	3,869.5	3,458.5	3,837.9	3,940.8	3,911.8	3,753.7	3,542.7	3,287.4	3,308.3	3,251.1
전라북도	3,834.8	3,703.2	3,892.4	3,787.6	3,349.8	3,513.2	3,346.5	3,086.3	3,067.9	3,189.4
전라남도	4,593.4	4,331.1	4,241.6	4,538.8	3,771.1	4,174.3	3,926.3	3,407.4	3,501.5	3,669.1
경상북도	4,037.7	3,664.6	3,745.9	3,922.1	3,536.5	3,691.0	3,562.8	3,308.3	3,189.3	3,304.7
경상남도	4,428.2	4,084.2	3,768.7	3,923.4	3,641.1	4,307.5	4,246.8	3,765.6	3,474.9	3,687.4
제주도	4,976.1	4,892.9	4,983.6	5,975.0	5,307.0	5,739.2	5,829.5	5,201.3	4,512.4	4,220.3

▶ 세 번째로 분석한 통계청 e-지방지표에서 강력 범죄 위주로만 2021년 기준 인구 범죄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살인이라는 강력 범죄 경우에는 19개 지역 중에서 5위, 강도에서는 5위, 방화에서 6위, 성폭력에서 3위, 폭행에서 3위, 상해에서 6위, 협박에서 5위, 공갈에서 3위, 약취와 유인에서 4위, 체포와

감금에서 3위, 폭력행위(손괴, 강요, 주거침입등)에서 3위, 폭력행위(단체등의 구성, 활동)에서 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강력범죄의 경우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서울	159	125	242	8,459
부산	130	90	187	7,826
대구	55	51	76	2,213
인천	48	40	65	2,185
광주	46	34	55	1,843
대전	37	25	54	1,346
울산	34	23	52	1,291
세종	32	22	47	1,178
경기	27	21	44	1,067
강원	27	16	40	1,020
충북	19	13	38	926
충남	19	12	35	859
전북	19	12	32	831
전남	15	11	21	783
경북	13	10	20	566
경남	8	5	15	366
제주	4	1	2	139

그리고 경찰청 2020 범죄 발생 상황 관련 특성에 따르면 제주도가 1위, 서울특별시가 2위, 인천이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인천이 강력범죄와 2020 범죄 발생 경우에서 비록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지만 서울, 제주는 인천보다 높은 순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처럼 마계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언론이

1	제주	63.5
2	서울특별시	64.6
3	인천시	51.79
4	대전	50
5	강원도	47.5
6	부산	46.96
7	전남	46.3
8	충북	45.1
9	울산	44.1
10	광주	43.3
11	경기도	42.1
12	충남	41.39
13	전북	40.9
14	경남	40
15	경북	38.4
16	대구	37.9
17	세종특별자치시	27.1

인천의 범죄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기사로 많이 작성하였고 그래서 기사에 노출된 사람의 수가 많이 늘어 사람들이 확증편향(자신의 가치관, 신념 등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 심해져 인천이 서울, 제주에 비해 강력 범죄 건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제주보다 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었습니다.

* 출처: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3_2020.jsp/)
경찰청 2020범죄 발생상황 관련 특성. | (366~377p)

① 인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하주용 교수 인터뷰

인천에서 열렸던 ‘인천의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토론회’에 대한 내용의 뉴스 기사를 읽던 중 인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하주용 교수님께서 위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가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주용 교수님께서 위 토론회에서 인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범죄뉴스의 기사 제목에 지역명 노출 수준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주용 교수님께서 토론회에서 “범죄뉴스 제목에 지역 이름이 포함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기며 범죄 발생지역을 어느 수준까지 표기해야 할지 저널리즘 측면의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토론회에서 공개하신 조사 내용은 인천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달리 실제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낮았고 강력범죄 기사의 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지역명도 과대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는 더욱 정확한 근거를 얻고자 하주용 교수님께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질문을 이메일로 여쭙보았습니다.

1. 인천의 범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 기사에 인천의 지역명 노출 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인천의 지역명이 미디어에 부정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인천은 어떤 피해를 보게 되나요?
3. 범죄 발생지역을 어느 수준까지 표기해야 할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현재 위 질문들을 이메일로 보낸 후 인하대학교 측으로 연락을 드린 상태이며 답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출처 : 김미정 기자, “인천언론인클럽, “인천의 부정 이미지 조성 언론부터 고민해야””, 2023.05.18.,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8527>

🔊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 인터뷰 요청

저희는 인천에 대한 정보를 더 탐색하다 목동훈 기자님께서 작성하셨던 칼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목동훈 기자님께서 데스크 칼럼을 통해 미디어 한쪽에서 무심하게 ‘마계 인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마계 인천’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이며 이러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칼럼의 내용이 저희가 팩트 체크하고자 했던 내용과 유사하였고 목동훈 기자님께선 인천을 담당하시는 기자로 평소 인천에 대한 지식이 높으실 것으로 생각하여 기자님께도 칼럼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1. 마계 인천이 잘못된 표현인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위 부정적 별명으로 인해 인천이 보고 있는 피해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위 질문들을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며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출처 : 목동훈 기자, “[데스크 칼럼] ‘마계(魔界) 인천’이라 불러야 하나”, 2022.02.07., 경인일보,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20206010000699>

찾아보기

물어보기

03 직접해보기

반론의견

직접 실험해볼 수 있는 방법

인천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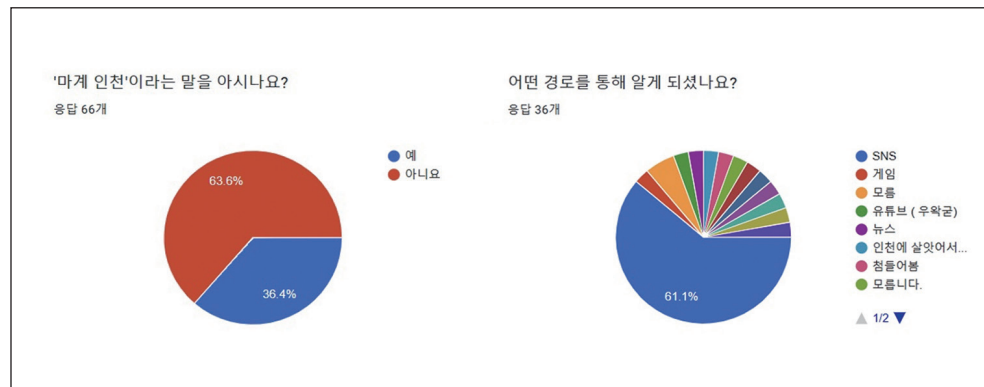
평소 사람들의 인천에 대한 인식을 더욱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인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설문 문항은 총 6문항으로, ‘성별은 무엇인가요?’, ‘현재 인천에 거주 중이신가요?’, ‘평소 인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계 인천’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나요?’, ‘자신이 알고 있는 인천에 관한 소문들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입니다.

해당 설문조사를 시행한 궁극적인 목적인 인천에 대한 OO고 재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평소 인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3번 문항과 ‘자신이 알고 있는 인천에 관한 소문들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의 6번 문항을 통해 인천 하면 떠오르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인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합 66개	자신이 알고 있는 인천에 관한 소문들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총합 40개
인천항 있고 사람 많고 큰 도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도시..?
범죄율이 높은 도시	안좋은 사건 사고들이 인천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들음
국제 공항 있는 곳	안전이 많다
공원, 개발 많이 안됨,	분위기 안좋은 고등학교가 많다.
공원이 있다	길거리 북음이 많다.
약간 위험한 도시	안전도 많음
인천국제공항 등 우리나라에 드나드는 외국인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많으며 푸른 서해를 앞에 두고 있어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세백에 잘 안 좋은 말들이 많이 퍼져있다고... 가솔한 사람도 많고..
침략에 살고 있어서 다른 동네까지는 모르지만 살기 쾌적하고 좋은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교통편은 좀 불편해요	인천에서 음악행사가 많이 열린다?
	월미도 배미원 참 재밌다

설문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

전체 66개의 답변 중 “눈을 마주치면 싸움을 거는 도시”, “범죄가 많은 도시”, “양아치가 많은 곳”과 같은 부정적 인식을 담고 있는 답변은 18개로 약 30%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인천 하면 떠오르는 생각으로 “인천차이나타운”과 “인천국제공항”, “월미도”라는 답변이 상당수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마계 인천”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 전체 36.9%, 알고 있지 않은 학생 수는 63.1%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계 인천”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 학생 중 과반수 이상인 61.1%는 SNS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마지막 문항의 인천에 관한 소문 중 62.5%는 인천의 부정적인 모습을 담은 답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5명의 학생의 답변 중 “마계 인천이라는 오해를 풀고 싶고, 다른 지역과 비슷한 범죄율을 지니고 있음에도 인천을 배경으로 한 범죄 영화가 많고 범죄 기사 제목으로 인한 오해가 깊어진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으며 인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인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주안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마계 인천”이라는 용어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학생들의 대다수가 알고 있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비롯하여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라는 인지는 여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OO고 재학생 대상 인천 인식조사의 결과 내용은 ‘인천은 범죄가 다분히 발발하는 범죄 도시이다.’라는 사실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질문지를 만들 때 질문 하나하나의 유기성을 보이기 위해 어떠한 질문을 생성해야 할지 일차적 관문에 막혔습니다. 또한, 인천 거주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과거 거주 여부를 포함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추가로 남성과 여성을 질문한 근본적인 이유는 어느 성별이 해당 사실의 인지도를 알기 위함이었으나 이를 알기 위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생성해야 했음을 결론 도출 중 알게 되어 질문지의 미흡함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 반론

인천에 이러한 별명이 생겨난 이유에는 실제 범죄율이 높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미디어 자료들만 보아도 인천에 범죄자들이 실제로 많다는 이야기가 대다수이고, 실제로 2006년~2009년 상반기 광역 지자체별 인구 10만 명당 5대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인천이 5위로 낮지 않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 다른 비슷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순위권에 있는데 위와 같은 별명이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는 남성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때문일 수 있다.

➔ 재반박

인터넷에서 ‘마계 인천’을 비롯한 비슷한 뉘앙스의 별명들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후반입니다. 이에 당시 범죄율이나 끔찍한 사건들이 인천에서 일어났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단편적인 통계자료는 그 지역의 전체적인 범죄율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 통계자료인 2020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를 보면 10만 명당 범죄 건수는 인천은 85개 시 중 17위로 비교적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크게 높은 범죄율을 나타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디어에서 인천에 대해 범죄의 도시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과거의 특정 사건 때문에 잘못 심어진 인식이 계속해서 인천에 대한 오해를 낳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작성하기

인터넷상에서 ‘고담 대구’ ‘마계 인천’, ‘라쿤 광주’ 등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별명들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인천이 이러한 현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판단하여 이를 팩트체크 해보았습니다.

먼저 부평에서 일어난 패싸움 사건을 전달하는 뉴스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서 ‘마계 인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이렇게 흔히 사용되는 인천의 별명인 ‘마계 인천’이라는 단어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마계’는 악마들이 사는 세계라는 의미가 있는데, 과거 2000년대 초중반 당시 지역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별명들(ex.고담 대구, 라쿤 광주)이 만들어질 때 인천에서도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인터넷상에서 먼저 만들어진 별명입니다. 이후 인터넷 사이트나 뉴스 기사, SNS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며 관련 콘텐츠들도 생겨나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계 자료를 통해 조사해본 결과 인천은 ‘마계 인천’이라는 험악한 별명만큼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우선 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의 범죄 발생 건수는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경기도 순으로 인구가 많이 분포해 있는 지역 순서대로 범죄 발생 건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구 대비 범죄 건수를 분석하여도 인천이 뚜렷하게 높은 수치가 아닌 대체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검찰청의 2020 범죄분석 자료에서 인구 10만 명당 시도별 범죄율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추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인천은 9년간 가장 높은 순위가 17개 시도 중 8위일 정도로 높지 않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주용 교수님께서 ‘인천의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토론회’의 발제 내용을 보면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강력범죄의 기사 건수와 기사 제목 내 인천 노출 순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도 ‘마계 인천’이라는 용어를 아는 학생을 물론이고 ‘마계 인천’이라는 용어를 모르는 학생들

또한 인천의 이미지를 범죄가 다분히 일어나는 범죄 도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e-지방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6건으로 지역 중 2번째로 적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전국 평균인 26.80건보다 작은 범죄 발생 건수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대부분 평균보다 범죄 발생 건수가 적었으며 ‘인천 일보’에 따르면 치안 고객 만족도가 높을수록 치안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찰청이 주관한 2020년 치안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85.7점을 기록해 전국 18개 지방청 중 2위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함께 공개된 2020년 체감 안전도 평가 순위에선 74.9점을 받아 전국 꼴찌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분석하며 알게 된 점은 인천의 실질적인 범죄율은 낮고 치안 서비스도 질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마계 인천”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의 강력범죄 기사의 수도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점으로 인천의 이미지를 손실시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저희는 인천은 사람들이 흔히 아는 것처럼 인천은 많은 범죄가 다른 지역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니며, ‘마계 인천’이라는 별명 또한, 사실에 기반을 둔 별명이 아니지만 위 별명과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인천은 ‘마계’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것이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의 범죄율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닌 미디어에서 보이는 도시의 이미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뉴스나 기사 등에서 사건을 전달할 때 ‘마계 인천’과 같은 인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데 과거 인천 도시공사에서 지원했던 영상 제작물처럼 인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타파시킬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들도 인천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제작할 미디어 콘텐츠도 위와 같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마계 인천" 진짜라고 생각해?

콘텐츠 소개

➔ 기획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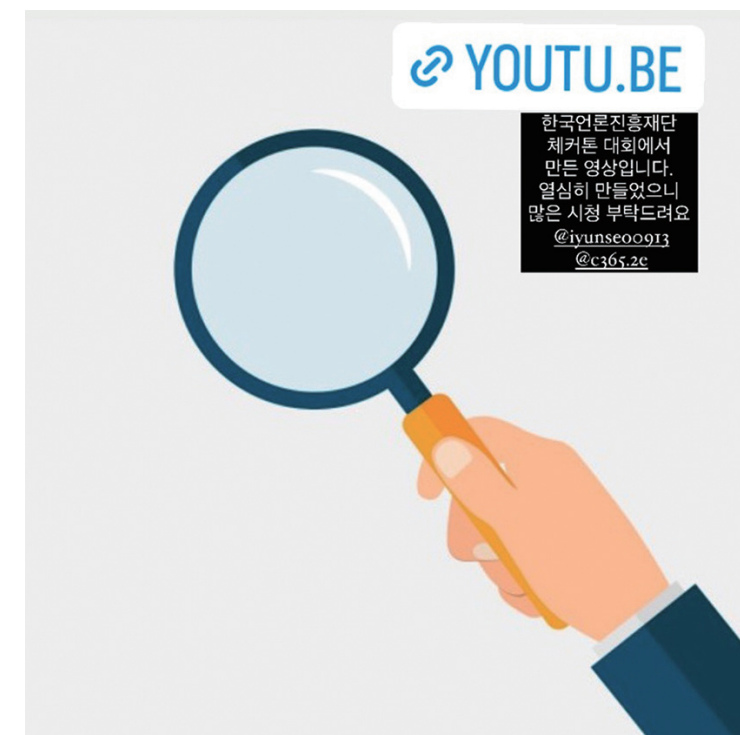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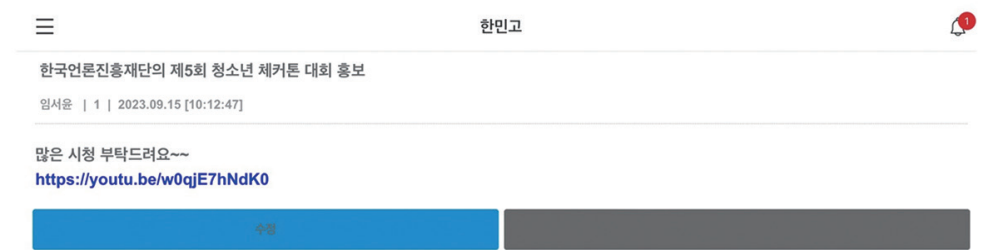
“마계 인천”이라는 인천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생겨난 인천의 별명이 잘못됨을 알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함. 인천을 마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인천에서 살아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잘못된 소문만 듣고서 인천에 대해 험악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해를 했던 사람들에게 사실 인천은 그러한 지역이 아닌 소문과는 다른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위와 같은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마계 인천”이라는 인천의 인식이 생겨나게 된 것이 부족한 팩트 체크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팩트체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의도도 담겨있습니다.

➔ 상세설명

위 영상에서는 팩트체크의 중요성에 대해 암시하는 내용을 시작으로 하고 있으며, 마계 인천의 잘못된 인식이 담긴 다양한 자료들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마계 인천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천이 마계 인천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팩트체크 활동을 통한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제시하며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이 생겨나게 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하며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제작한 영상을 과거 설문조사 결과 많은 학생들이 인천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던 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인천에 대해 또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리로스쿨 학생 게시판을 이용해 영상을 홍보하였으며 그 외에 외부사람들에게도 홍보하기 위해 SNS 계정을 활용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참여소감

이윤서

이번 대회에 참가하며 참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도 미디어 리터러시와 팩트 체크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활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팩트체크 활동이 생각보다 많은 검증과 많은 자료들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검증을 하며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검증하고 이에 대해 미디어 자료를 만들어 알릴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게 다가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기회를 이번 활동을 통해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참 좋았습니다.

임서윤

많은 통계 자료를 분석하면서 인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자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이유가 언론에도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팩트체크 활동을 진행하면서 평소 편견들이나 거짓된 정보를 바로 잡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팩트 체커로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정보가 없는 깨끗한 세상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팩트체크 활동의 필요성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박채은

체커톤이라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여도 팩트체크의 중요성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통해 말 한 마디, 기사 한 줄, 글 한 개 등 문서와 언어를 접할 때 전달하는 과정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개인의 변화가 세상의 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그날까지 다가갈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